

4 기획

1면에서 계속 →

정치적 이념에 벗어났어도
혐오·조롱 언어는 ‘극우’라 볼 수 있어

극우는 극단적인 우익 사상을 가진 정치적 이념을 칭하는 용어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그 기준은 훨씬 흐려져 있다. 혐오·조롱·편파와 같은 표현 그 자체가 타인을 향한 적대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홍지오(사회학 2022) 씨는 에브리타임(에타)과 같은 커뮤니티가 편 가르기의 온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에타에서 논리가 결여되고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쓴 것 같은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주 봤다”며 “익명성 뒤에 숨은 성별, 문·이과, 학과 간 갈등 같은 편 가르기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이덕수(미디어학 2020) 씨도 “에브리타임에서 보수 진영을 ‘내란권’이라고 부르고, 진보 진영을 ‘배급권’이라고 폄하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비평가 이택광(영문학) 교수는 극우 개념을 “정치만이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도 정의할 수 있다”며 “극우는 학술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시즘에도 정치적 체계로서의 파시즘과 생활 방식으로서의 파시즘이 있다”며 “한국 정치 체제는 극우화의 최악은 피했지만, 일상에서는 극우 형태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치 체제의 면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더라도 일상 속 극우가 사라지지 않으면 정치 체제 역시 언젠가 극우적 위협에 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극우를 하나의 정치 성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극단화, 타인에 대한 적대감, 배제적 언어의 일상적 사용이라는 정서적 기준에서도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화가 혐오·차별 정서로
배타적 성향이 극우화 부추겨

청년들은 스스로를 극단적 성향과 거리가

먼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판단은 의외로 극우적 정서와 닮아있다. 김태훈(사회학 2022) 씨는 “의식적으로 혐오 표현을 자제하려고 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형진(정치학) 교수는 “한국 극우 정서는 외국 극우와 결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임 교수는 “극우 특징 중 하나는 약자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는 것인데, 최근에는 중국을 향한 혐오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조별과제에서 처음엔 모두를 챙기고 싶었으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외국인 학생과 함께 하기를 꺼리게 됐다”며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점수를 받아갈 땐 분노가 조금씩 쌓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 안의 작은 극우성’은 누군가를 명확한 적으로 삼거나 특정 이념을 따르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적 단정, 타자에 대한 거리두기, 무의식적 배제 같은 작은 감정적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밈’처럼 소비되는 극우 표현
미디어 교육은 부재해

‘툼툼’, ‘OO충’, ‘원래 OO들은~’ 최근 대학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다. 처음에는 농담, 소위 말하는 ‘밈(meme)’으로 시작됐지만, 반복되고 소비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최승우(물리학 2020) 씨는 “대상자가 친한 친구라면 서로 재밌게 놀리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

툼툼도



일베 용어?

다”고 말했다.

김윤철(한국정치)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교육 공백과 감정 자극 콘텐츠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김 교수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성이나 민주주의 감수성을 기르는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안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극우 콘텐츠가 청년들의 정서와 언어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극우 유튜브는 돈을 벌기 위해 분노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 편에 서기 쉽고, 자연스럽게 극단적 표현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밈처럼 소비되는 표현은 단순

한 유행이 아니라 정서적 극단화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다.

이처럼 청년들의 언어와 정서 속에 스며든 극우 정서는 단순히 말투나 농담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감정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서가 왜 청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경쟁과 불안, 사회적 고립, 능력주의, 온라인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다음 2회차에서는 이러한 청년 세대의 구조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극우적 감정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 인근
혐오 현수막
난립해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지난 보름 동안 국제캠 정문 앞에 붙은 혐오 현수막 사진. (사진=김예찬 기자)

“중국 욕하면 징역 5년! 이게 나라냐?”, “무슨 관계?(대통령,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 지난 보름 동안 국제캠 정문 앞에 붙은 현수막이다.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분류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의결됐음에도, 양캠 인근에는 여전히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기흥구청은 “정문 앞 두 현수막은 정당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구청 용역반이 매일 지정 코스를 따라 불법 현수막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은 현행 규정상 동별 최대 2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개정될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천고등학교 재학생 심호진 씨는 “현수막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와 별개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